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준공을 앞둔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유관내 시경실, 유선촬영실, 초음파실, 심전도실, 입원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의료설비들의 성능과 특성, 연구소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홀에 들어서시어 마치 궁전에 온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건강한 몸으로 만복을 누리게 할 우리 녀성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유선종양연구소의 치료대상범위를 어떻게 정했는가를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뿐만아니라 먼거리의 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전국의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할수 있다는 해당 부문 일군들의 대답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었다.

2층 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기인 지난해 11월 평양산원에 현대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건설할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던 모습도 기억되니 보아주시었다 하시면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연구소의 관리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입원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입원실마다에 액정TV와 랭장고도 놓아주자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종합수술실을 돌아보시면서는 무균화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르시었고 집중치료실에 들리시어서는 직업성인들이 환자들의 생명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평양산원 의사와 간호원, 환자들을 위해 당에서 마련해준 여러가지 위생복과 실내화들도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니 정말 만족하다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잘 꾸렸다고, 우리 녀성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류경원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원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진 복도를 지나 휴식홀에 들어서시었다.

군인건설자들이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높이 받들고 휴식홀의 넓은 공간을 인민들이 휴식의 한

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꽃장식도 아름답게 하고 원형의자도 특색있게 설치해놓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치료체육실에 들리시어서는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보아주시었으며 당에서 마련해준 자외선침대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었다.

대중탕의 육조에 손을 담그시고 물온도를 가늠해보시었으며 덕수의 수감부가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었다.

랭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욕과 한증을 하고나면 땀구멍이 열리는데 랭육을 해야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랭실의 온도를 잘 보장해주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습식한증관에 들리시어서는 적당한 온도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증기를 보양하게 내뿜을수 있게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고 증유석한증관과 소나무한증관에 들리시어서는 의자배치를 더 잘하고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해서 이르시었다.

옷보관실을 돌아보시면서는 류경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목욕도구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특별히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원을 돌아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중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인민야외빙상장을 돌아보시었다.

빙상홀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넓은 공간에 시원하게 펼쳐진 얼음판우에서 스케트를 타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만족하게 보아주시었다.

스케트를 타는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이 3살부터 6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아이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었다.

나이는 몇살인가, 스케트를 타는것이 좋은가도 물어주시며 두발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는 친어머니사랑에 《원수님! 사진을 찍어주시시오.》라고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이 귀여우시어 호랑하게 웃고 하시면서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얼음깎는기계의 성능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기때문에 얼음을 제때에 깎아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었으며 빙상장밖에서 스케트를 신고 다닐수 있게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라스케트라는 사시절 진행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중강기슭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기교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가지 로라스케트를 가지고 채치있는 기교동작을 펼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시었다.

신바람이 나서 운동을 하는 근로자들

속에 4살밖에 안되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아이들이 있는것을 보시고서는 시내를 돌아보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로라스케트를 타는 모습을 보았는데 로라스케트라는 바람이 불고있다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시간이 퍼그나 흐르도록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을 웃음속에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라스케트장을 잘 꾸렸다고, 마음에 든다고 거듭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공을 담당하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로라스케트장을 잘 건설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고 이제나저제나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아쉬움속에 철수하였다는 동행한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시간을 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이 《탄세!》를 부르며 따라섰다.

윤기시던 젊음을 멈추시고 걱정여겨워 받을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4. 25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의 사격경기와 번개팀과 평양팀간의 여자배구경기를 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4.25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의 사격경기과 번개팀과 평양팀간의 여자배구경기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새로 꾸려진 4.25국방체육단 야외사격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25국방체육단의 야외사격장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사격경기장으로 꾸리는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실태를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아버지장군님께서 40여차례나 다녀가신 4.25국방체육단 야외사격장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려졌다.

야외사격장을 잘 꾸렸다고 평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25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의 사격경기를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25국방체육단에서 앞으로도 유능한 사격선수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국제대항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새로 꾸려진 체육관에서 번개팀과 평양팀간의 여자배구경기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새로 꾸려진 체육관을 돌아보신 후 번개팀과 평양팀간의 여자배구경기를 보아주시었다.

이날 경기는 번개팀의 승리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를 보시고 선수들이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

기를 잘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번개팀과 평양팀의 여자배구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체육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가을철 청소년적십자나무심기 진행

가을철 청소년적십자나무심기가 7일 성천군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군들과 회원들, 청소년적십자회원들,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연맹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 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나무심기에 앞서 연설들이 있었다.

이 참가자들은 검은오리나무를 심었다. 가을철 청소년적십자나무심기는 전국적으로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본사기자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할 도마도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평양남대 과학연구소에서—

### 평화수호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이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으며 평화없는 민족의 생존, 통일과 번영에 대해 생각할수도 말할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세당의 전쟁책동이 더욱더 심해지고있다. 그러나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야망이 위협수위를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상전의 부추김에 남조선보수세당도 북침전쟁소동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

을 사색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등의 간판을 내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옹군 한개의 전쟁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력량을 실은 미국의 초대형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조선반도주변수역을 맴돌고있는 속에 얼마전에는 화학전수행을 전투임무로 삼고있는 미군화학대대가 수십년만에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들었다. 최근년간에 더욱더 우심해지는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야망이 위협수위를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삼천리조국강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민족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 겨레는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평화가 수호되지 않고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안녕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강화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또한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면 힘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것이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기어이 안아오야말것이다. 장경률

장경률

# 백두산형의 장군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조종의 산이다. 사시정철 흰눈을 띠고서 이 나라 남해가의 구제봉까지 삼천리강산을 한지맥으로 이어놓는 백두대산줄기가 시작된 곳이다. 강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수난받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 해주시러 아버지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셨고 선군의 보검으로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곳. 자주와 존엄으로 자랑높은 조국의 오늘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백두산은 절세위인들의 애국업적으로 그 이름 위대한 민족의 성산이다. 민족의 다함없는 경모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바로 이 백두산에 그대로 닮으신 백두산형의 장군이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은동지는 영광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이라고, 그의 정신과 기질은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그대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백두산형의 장군! 광란하는 거세찬 눈보라를 휘여잡으며 이 나라 북변에 거연히 서있는 백두산의 모습과도 같이 겨레의 운명을 지켜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 거룩하게 서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백두처럼 들리지 않는 역세인 기상, 그 어떤 퇴성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배짱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전쟁책동에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력으

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파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수처스러운 파멸을 맞게 될것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은 이렇게 담대한 것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의 첫 아침 조선인민군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었다.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겨레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선군위업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되고있으며 또 한분의 선군명장을 모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믿음직하게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수호되고 조국통일도 문제없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 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을 시찰하시어 대결과 분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고야말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북남생방이 총구를 맞대고있어 함시적으로 긴장한 분위기가 감도는 판문점의 로데우에서 한낱에 생안경을 드시고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그이께서는 원수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

명을 지켜주시러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우리의 영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시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백두의 혈통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결심과 의지는 추호도 드림이 없으며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그 어떤 도전세력도 민족의 거세찬 통일호를 가로막을수도 멈출수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언론계는 《남측이 이제 해도해도 이기지 못할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통일연습이나 하면 어떨것인지 권고한다》, 《지금도 일부 서방언론들은 《체제불안정》이니 심지어는 《북붕괴》이니 하면서 북의 영상에 먹칠을 해보려고 외곡하고 중상모략하고있으나 현실은 그같은 주장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단지 망설이며 망상임을 똑똑히 확인해주고있다.》고 전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백두산형의 장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믿음직하게 수호될것이며 운겨레가 그토록 바라고바라는 조국통일도 멀지 않아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 《 김정은 열풍 》

브라질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이것이 김정은최고영도자에 대한 세계언론의 평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영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추대되시어 정치무대에 공식 등장하시자마자 일약 세계적인 명인으로 되시었다고 하면서 글은 세계의 수많은 언론인들이 그이를 세계 10대명인으로,

주목되는 명인으로 선정하고 그이의 위인상을 전하는 편 집물들을 앞을 다투어 게재 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면서 글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위대한

흥페지는 《열화같은 흥모》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진보적인류는 김정은최고영도자를 세계 자주화위업의 개척자, 영도자이시었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사상과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받들고모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주제사상대회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김정은최고영도자를 모시어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주제사상대회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김정은최고영도자를 모시어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서

##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영웅적조선인민군대를 불멸의 강군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선군명도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형명장군으로 역사에 자라났다. 하기에 미국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이 극도에 이르러 지구상에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이 집중된 이 땅에서는 오늘도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이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창조와 건설에서도 자기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인민군인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바지하는 공장과 발전소, 극장과 유원지 등 어떤 건설물들도 단숨에 일떠세우고 있다. 일찌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대로부터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은 다박출소소를 찾으시었던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더욱 출기차게 이어졌다. 그 길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못 가보신 곳인데 꼭 가보지게 되었다. 오늘 평양시가 더욱 훌륭한 세계적인 도시, 인민의 행복민천 문화적인 도시로 훌륭히 변모되고있

아주신 섬초소도 있고 위험천만한 판문점과 351고지, 1211고지도 있다.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불멸의 강군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선군명도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형명장군으로 역사에 자라났다. 하기에 미국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이 극도에 이르러 지구상에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이 집중된 이 땅에서는 오늘도 평화가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이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창조와 건설에서도 자기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인민군인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바지하는 공장과 발전소, 극장과 유원지 등 어떤 건설물들도 단숨에 일떠세우고 있다. 일찌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대로부터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은 다박출소소를 찾으시었던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더욱 출기차게 이어졌다. 그 길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못 가보신 곳인데 꼭 가보지게 되었다. 오늘 평양시가 더욱 훌륭한 세계적인 도시, 인민의 행복민천 문화적인 도시로 훌륭히 변모되고있

는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인들의 정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함강과 보통강정리공사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평양시내 공원들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변모시키는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늘 인민군인들은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들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일 강위력한 무적의 군대,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고 창조하는 인민의 군대로 키우시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오늘 모든 인민군인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보위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전투장마다에서 조국의 아들, 인민의 아들로서 순결한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며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군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나갈것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고해경

## 시 초 영 원 히 모 시 고 따 르 령 니 다

우리들은 김정은원수님의 청춘 약 속

오늘인가 래일인가 조국땅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하루 또 하루 기다렸습니다 언젠면 그 언젠면 자나 깨나 뵈고싶은 원수님을 뵈올가 백두산총대의 약동실에 통일외 총독관이 재워진 그 시각 축복의 금방석 마련해주시고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그 사랑이 땅의 지희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가슴가득 훈장이 번쩍이는 조국의 청년대표들과 나란히 지희들의 가슴에도 원수님의 태양상과 친필이 모셔진 대표증을 안겨주시고 위험이 도사린 멀리 전선의 전호가에 계시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이 불련할새라 속소방문도 조직해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축하문도 보내주신 원수님!

김 영 너 (재중조선인정년련합회 위원장) 자나 깨나 뵈고싶은 간절한 그 소망 그리움의 선물을 실려 멀리멀리 전선으로 울려와갈제 온 세상이 환하도록 태양의 미소 뿌리시며 영광의 기념촬영장으로 나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러 삼가 올리는 고마움의 큰절, 맹세의 큰절 받아 주시며 뜨겁게 환풍에 안아주시 때 온 세상 해외동포청춘들이 위대한 태양의 그 품에 모두 안겼 습니다 그 순간은 위대한 태양의 심장에 우리들이 박동을 맞춘 순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원한 청춘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영광의 기념사진 가슴에 품고 우리 영원히 모시고 따르렵니다 애국의 청춘으로 한생을 빛내렵 니다

영광의 기념사진촬영장에서 원수님을 모신 행복 가슴에 안고 뜻밖에도 만났구나 청년절경축대표 우리 두 형제 태어난 날 앞섰다고 누나이더나 불라는 청춘의 열정을 바쳐 누나 먼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동생아, 네가 정말 돋보이고 자랑스럽다 너는 어머니조국땅에서 나는 백두산을 우리르며 동북땅에서 원수님 받들어 애국의 탑 누가 더 높이 쌓는가 우리 서로 경쟁하자! 한 성 옥 (재중조선인정년련합회 료녕지구청년위원회 회원) 눈부리 아득한 간척지벌이 내 조국의 긍지이고 자랑인 인공 지기위성이 사회주의부귀영화 마음껏 누리는 조국인민들의 행복한 그 모습이 안겨옵니다 그 흥페속에 김정은애국주의로 거세찬 숨을 내뿜으며 용용히 일떠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 강성대국의 모습이!

리 설 희 (재중조선인정년련합회 료녕지구청년위원회 회원) 하나 너무 으쓱달아라 누나의 맹세도 불보다 뜨겁다 우리 서로 약속하자 어릴적 그때처럼 손가락 걸고 너는 어머니조국땅에서 나는 백두산을 우리르며 동북땅에서 원수님 받들어 애국의 탑 누가 더 높이 쌓는가 우리 서로 경쟁하자!

## 영원한 청춘의 출생증!

꿈만 같습니다 만장에 터져오른 축하의 박수속에 소중히 받아안은 청년절경축대회 나의 대표증! 보고 또 봅니다 원수님의 태양상과 친필을 모신 대표증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정녕코 틀림없는 내 이름인가 평범하기 그지없는 해외공민청년입니다 조국위해 세운 공이 무엇이던가 너무도 송구함애 몸돌바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리 국 화 (재중조선인정년련합회 사무국장) 꿈만 같아 다시 보고 또 보는 나의 대표증 멀리 있는 자식들을 끌어들이 위하시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애국의 진격로에 내세워주시는 이 세상 다시 없을 믿음입니다 아, 이 심장 높뛰게 합니다 나의 대표증 그것은 보답의 청춘 애국의 청춘 김정은원수님의 청춘으로 내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영원한 청춘의 출생증입니다

하늘을 찌르며 일떠선 황홀한 새 거리의 환히 웃는 창문들이 언젠의 물결속에 반짝이는 나의 대표증 멀리 있는 자식들을 끌어들이 위하시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애국의 진격로에 내세워주시는 이 세상 다시 없을 믿음입니다 아, 이 심장 높뛰게 합니다 나의 대표증 그것은 보답의 청춘 애국의 청춘 김정은원수님의 청춘으로 내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영원한 청춘의 출생증입니다

오, 조국청춘들의 앞가슴에 빛나는 훈장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받들어 조국의 무궁변영 진격로를 열어가게는 척후대, 돌격대의 위훈의 발자욱 철령철령 위훈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애국의 길, 보답의 길로 어머니조국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 나도 태양민족 김정은원수님의 청춘 나의 가슴에도 조국청년들처럼 해님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애국청정의 아름다운 무지개 눈이 부시도록 빛나게 하렵니다!



공원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인민군인들 - 모란봉구역에서 -

# 공 화 국 의 품 은 진 정 한 삶 의 보 금 자 리

## 남조선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김광혁부부와 그의 기자회견 진행

남조선피괴들의 비열한 모략과 회유기만책동으로 남쪽땅에 끌려갔다가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으로 돌아온 김광혁부부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 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먼저 김광혁이 발언하였다.

그는 자기의 지난날이 너무도 피스럽고 수척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말 뭐라고 속죄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난 시기 학습과 조직생활을 하기 싫어하였다.

그러나나니 고난의 행군시기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법월경까지 하였다.

그후에도 돈에 눈이 어두워 2008년 3월 또다시 플래 비법월경하였다.

중국에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김희산이라는자를 알게 되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남조선피괴들과 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거간꾼이었다.

당시 나는 병에 걸려있었는데 어느날 그자가 찾아와 남조선에 가면 병도 고칠수 있고 돈도 마음대로 벌수 있다고 꼬드겼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과 술까지 사먹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었다.

처음에는 남조선으로 간다는것이 조국을 배반하는 길이었기에 선뜻 결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알아차린 늙은 집요하게 회유하였다.

신념이 확고하지 못했던 나는 그의 얼림수에 넘어가 남조선으로 갔다고 하였다.

그자는 남조선에 있는 어떤 자와 전화로 《보종인》이 어떻고 돈이 얼마고 하면서 함참 속덕거리고 나서 이제는 다 됐다 하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가면 그 대가로 자기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고 보충서를 쓰게 하였다.

이 거간꾼들은 피괴정보원놈들의 조종밑에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고는 당국에서 돈을 받고 월남도주환자들에게서도 돈을 뺏아내며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고있다.

그후 나는 이놈저놈의 손으로 계속 넘겨지면서 중국 곤병에 갔다.

안배자를 따라 어느 한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명의 우리 사람들이 와있었다.

그들을 끌고온 거간꾼들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남조선에 가면 일인당 돈을 얼마씩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채용중에 손지장까지 찍게 하였다.

그리고는 수시로 남조선과 전화를 편지를 가지면서 초소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우리를 타이의 방곡코에 끌고갔다.

거기에 도착한 우리는 남조선에서 온 자를 따라 어느 한 건물에서 가서 하루밤을 지낸 다음 《난민 수용소》라는 데로 끌려갔다.

《난민수용소》는 타이에 불법입국하는 사람들을 관리처리하는 곳인데 남조선피괴들은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 기 위해 거기에 방들을 사두고 있다.

《난민수용소》에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참을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어느날 타이주제 남조선대사관에서 왔다고 하는 두 놈이 나를 찾아와 사진을 찍고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하였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나 비행기에 실려 남쪽땅으로 끌려갔다.

이어 김광혁의 안내 고경남이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여가기 위한 피괴들의 책동은 참으로 교활하고 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나는 장사에만 눈이 어두워 다니다가 어느날 시장에서 안호근이라는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자로 말하면 우리 제도에 매

한 양심을 품고 사람들을 비법월경시켜 남조선피괴들에게 넘겨주는 놈이었다.

그자는 처음에 나의 환심을 사보려고 옷가지들을 사주었다.

나는 접차 그 놈을 믿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는 꼬임에 홀리워 2008년 9월에는 비법월경까지 하였다.

그후 그자는 나에게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기 시작하였으며 돈벌이감을 마련하였으니 기다라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불들어놓았다.

그동안 나는 그자가 안내해준 집에 숨어있으면서 남조선TV극과 섹션적인 노래들을 보고 들었다.

그 과정에 남조선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이 짝뜨게 되었고 또 안호근은 남조선에 가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계속 나발을 불어댔다.

나는 그 말에 넘어가 남조선에 가면 잘사는 사람과 결혼하여 돈도 많이 벌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남조선에 대한 환상에 빠진 나는 그자의 말에 넘어가 고말았다.

그후 나는 안호근의 소개로 남조선에 있는 김경희라는 녀자의 조종과 그가 뿌리는 돈에 매수된 거간꾼들에 의해 타이까지 가게 되었다.

타이에 이르자 김경희는 나에게 전화로 이제는 북으로 끌려갈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남조선으로 오면 자기에게 그동안의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오름을 박았다.

나도 타이의 《난민수용소》에서 두달가량 갇혀있다가 남조선 피괴들의 조사를 받고 남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듯 남조선피괴들은 해외 각지에 저들의 앞잡이들을 거미줄처럼 늘어놓고 그들을 통해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놀음을 계획적으로 벌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겪으면서 비로소 놈들에게 속히었으며 거기에 있어야 죽을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아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러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기 위한 리명박패당의 교활한 회유기만책동의 일단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다.

김광혁부부 남조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고경남):사실 우리는 남조선에 가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남쪽땅에 가보니 남조선이야말로 빗봉은 개살구하고 씨올대로 썩은 사회였다.

TV에서 나를 유혹하였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었다.

내가 살게 되어있던 광주시의 집만 보아도 그렇다.

매우 넓은 쪽방인데다가 구석 구석까지 구멍이 있어 바람이 불어오는가 하면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악취까지 풍기었다.

지금껏 환상속에 그려보았던 집이 과연 이런 시궁창같은것이였는가 하고 생각하니 억이 막히고 눈물이 났다.

소름끼치는 그 집에서 살수 없어 다음날로 뛰쳐나왔다.

그후 나는 변변한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 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탈북자》들의 95%이상이 제집이 없이 세방살이를 하고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집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하루 한끼 제대로 먹는것도 문제이다.

언제인가 TV로 《탈북자》자매가 산속에서 짐승처럼 등산객들이 산다버린 음식찌꺼기를 씹고 일년내내 오물을 주먹으로 한지에서 나무잎을 덮고 살고있는데 대하여 울분을 토하는것이 방영된적이 있다.

나의 처지도 크게 다를바 없었다.

굶기를 밥먹듯 하였고 남이 쓰

다버린 물건짝들도 주어모았다.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에게 명색상 생계비라는것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한몫도 지탱하기 어려운 보잘것 없는것인데다가 그나마 결혼하거나 아무 직업이나 구하면 즉시에 자동적으로 끊기우고만다.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결혼신고서를 내자마자 생계비가 끊기었다.

우리 두명의 생계비를 다 합쳐야 한달 세금이나 겨우 낼 정도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놓았는지 막막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처럼 세금종류가 헤아릴수 없이 많고 그 돈 또한 생눈알을 뽑아먹을 정도이다.

우리는 그돈끝에 가정을 이룬지 두달도 못되어 다시 생계비를 얻기 위해 형식상의 리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생계비라는것은 《탈북자》들을 살려주는것이 아니라 가난에 쪼들리게 하고 직업도 가정도 제대로 가질수 없게 하는 무서운 울가미이다.

대답(김광혁):직업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와 안혜는 생계비로는 도저히 살수 없어 직업을 구하면 쫓겨나야 하여 여기저기 찾아 헤매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하였다.

우리는 끝내 독특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손전화가부품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간별로 일하는 일거리를 겨우 잡았다.

회사측에서는 나에게 누구도 하기 꺼려하는 제일 위험하고 힘든 일만 팔라 시키었다.

그리고 안혜에게는 3명이 해야 할 일감을 주면서 보수는 한명분만을 주었다.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참지 못하고 하루는 내가 작업하던 손전화를 바닥에 돌려치며 왜 돈을 적게 주는지 따져 물어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것들이 어디 시웠는가 하고 하면서 우리를 내쫓았다.

대답(고경남):그후부터 남편은 썩어빠진 남조선땅에 왜 왔는가 고 울분을 토하면서 늘 술에 취해있었고 그로 하여 병까지 되 지었다.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은 온갖 행태와 따돌림으로 하여 우울증과 정신장애를 비롯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나도 직업을 구해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남의 집 아이보게도 해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해보았으며 위생실청소도 해보았다.

남편이 얇아 누운데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자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해진 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구에 있는 한 간호학원에 들어갔다.

간담고글에 학원에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당한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수 없다.

교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수 없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점심식사로 따로 해야 하였다.

같이 식사하게 되는 경우에 남쪽사람들은 내가 마련해준 음식에는 독약이라도 친것처럼 애당초 수저를 대려고 하지 않았다.

환자들마저 《탈북자》한테서는 주사를 안맞겠다고 하면서 눈까지 흘기며 피해버리는 정도였다.

그 모든 행태와 멸시속에서도 나는 자격증만 손에 쥐면 직업을 얻을수 있다 고 생각하면서 해산한지 열흘만에 손과 얼굴이 튕러 부어오른 상태에서 학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몸에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을 이겨내며 학원으로 가야만 했던 나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일로 하여 지금도 산후탈로 고생하고있다.

병까지 얻으며 손에 쥘 자격증도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살기가 힘들어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준

다고 하기에 나중에는 교회당에 까지 찾아다니었다.

월남도주자들의 처지는 이처럼 참혹하다.

《탈북자》들은 자기들의 불행한 처지를 절망하다가 타락하여 범죄의 길에 들어서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남조선에서 신문을 보았는데 《탈북자》들의 범죄율은 남조선 주민들에 비해 2배이상이나 되고 자살률은 3배나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조선은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살수 없는 인간생지옥이며 더우기 《탈북자》들에게는 한치의 발도 붙일수 없는 불도의 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지금 리명박패당은 월남도주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보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에서 직접 체험하였거나 보고 들은 사실들이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대답(김광혁):남조선TV와 방송에서는 《탈북자》들을 내세워 공화국을 비방증상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있다.

《탈북자》들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공화국을 헐뜯고 사람들의 인식을 호리게 하는 거짓말을 계속 떠들어 대고있다.

TV에서는 악질 《탈북자》단체들이 공화국을 모해하는 빠라를 뿌리기 위해 군사분계선지역에 나갔다가 그곳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싸움까지 벌리는 장면들도 비치곤 하였다.

피괴당국은 《탈북자》단체의 개별적인 활동이요 뭐요 하면서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것처럼 놀아내지만 실지는 돈까지 대주며 피괴 부추기고있다.

우리는 그들을 돈을 미끼로 《탈북자》들을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끌어들이거나 《중인》으로 둔갑시켜 《강연》이나 《전시회》니 하는것들을 계속 벌여놓고있다.

《탈북자》단체들은 돈벌이를 위해 저저마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다, 어쩐다 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7월 전영철이 공화국에서 특대형과괴행위를 감행하려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매우 분격해하였다.

대답(고경남):피괴들은 《탈북자》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피괴정보원과 《하나원》에 몇달씩 가두어놓고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새막기 위한 교육을 주입시킨다.

내가 피괴정보원에 갇혀있던 때의 일이다.

《탈북자》들은 하루종일 끈질긴 조사를 마치고 나서 감방에 오면 또 공화국을 헐뜯는 선전목화물을 보아야 한다.

하루는 6.25전쟁을 북에서 일으켰다는 내용의 목화물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한것을 모서 보지 않았다.

나도 놈들의 취조에 치켜 쓰러진채 눈을 감고있었다.

감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그 광경을 본 놈들이 방에 들어닥치더니 밤새 재우지 않고 위생실청소를 시키는것이였다.

《하나원》에서는 매일 공화국을 헐뜯는 《강연》 놀음을 벌리고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공화국을 비방증상하는 글들을 쓰게 하고는 점수에 따라 돈을 주고있다.

남조선에는 종종 사람들이 문학적품을 쓰면 돈을 얼마큼씩 준다는 광고가 여기저기에 나붙는데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내용들이거나 《탈북자》들이 쓴것이면 우선적으로 당선시킨다.

지나해 12월 19일 담당형사가 전화로 푸짐히 먹을 일도 있으니 우리 부부를 몇가지 어디에 오라고 하는것이였다.

가고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못갈게 굴 것 같아서 집을 나섰다.

거기에 가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와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식탁을 마주한 우리는 천만땀방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통곡을 해도 씨런치 않을 그 자리에 음식상까지 차려놓고 우리를 끌어들이던 놈들이야말로 천하에 무리한들이고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짐승들이었다.

이렇게 리명박패당은 월남도주자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모략책동에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것은 다름아닌 공화국의 영상을 호러놓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통일선보사 기자:김광혁부부가 어떻게 되어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 올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김광혁):우리가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 올 결심을 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다.

나는 남조선에서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면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망상하였다.

그로서 고난의 행군시기 중국에 비법월경하였던 어머니까지 남조선으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곁에 있고 가정도 있었지만 살길은 갈수록 막막해졌다.

도저히 살래야 살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잊어보려고 술에 취하기도 하였지만 되사였다.

알고있는 나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안혜의 처절한 모습을 볼 때면 막 미칠것 같았다.

나의 머리속에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도저히 발붙일수 없고 어디에 하소연도 할수 없는 부정의한 사회, 가는 곳마다에서 행태와 멸시만 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사회, 인간의 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개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절망 뿐이었다.

정말 남조선은 돈과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인간의 초보적인 삶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며 앞날에 대한 희망조차 기대할수 없는 암흑천지이고 인간생지옥이다.

하기에 나는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남조선에 온 자신을 끊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죄많은 우리를 조국에서 어떻게 받아주겠는가 하는 불안과 걱정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다.

피괴들은 《탈북자》들이 북에 돌아가야 감옥에 가고 목숨도 담보할수 없다고 악선전을 하고있다.

대답(고경남):그때 아버지의 말에 나도 선뜻 찬성하였다.

사실 나는 남쪽에서 살려고 간 것이 아니었다.

돈을 벌여볼까 하다가 얼리워 남조선으로 끌려갔기때문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속에 날을 보내었다.

광주의 소름끼치는 집에서 하루밤을 보낼 때에 아이를 낳을 때 《탈북자》라고 참혹한 행태와 멸시를 당할 때에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며 조국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결심을 들은 순간 기뻐했다.

우리가 조국으로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였다.

고통과 피로움을 주는 《탈북자》라는 딱지는 지식에게까지

악착스럽게 달라붙는다.

남쪽에서는 《탈북자》 자녀라고 하면 어디 가나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매를 맞고 물리워 아이들이 집밖에 나가는것도 꺼려하고있다.

그러다나니 《탈북자》 자식들은 무섭기도 하고 마음까지 이그러져 학교에 제대로 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다.

《탈북자》 자식으로 멸시받으며 사는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절망과 비판에 빠져 탄불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될가와 두려웠다.

더우기 《탈북》 녀성들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나의 환멸과 증오를 더욱 불리워왔다.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유흥업소들에 끌려가 성노리개로 유린당하다가 무고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것이 《탈북》 녀성들의 비참한 운명이다.

변태적인 남조선사회에서 의지할데 없는 《탈북》 녀성들은 자신의 무리속에 던져진 먹이감에 불과하다.

남조선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 지금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의 80%이상이 자기들의 불행한 처지에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 고있다.

공화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우리는 그때부터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소식이 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영상을 모신 목화물을 보게 되었다.

완한 미소를 쓰시며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와 같은 어린이들을 한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원수님께서 언제나 애들을 고와하시는지 저희부부는 그 모습을 뵈으면서 저도모르게 울었다.

애 아버지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님께서 고와하시는것을 보니 수렁님과 장군님생각이 난다고, 수렁님과 장군님께서도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고와하셨는지 고하고 싶었다.

저희들은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목화물을 몇번이고 반복하여 안기게 하지도 다정하였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죄많은 우리를 조국에서 어떻게 받아주겠는가 하는 불안과 걱정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다.

피괴들은 《탈북자》들이 북에 돌아가야 감옥에 가고 목숨도 담보할수 없다고 악선전을 하고있다.

우리에겐 조국으로 갈 결심을 더해준것은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 녀성의 기자회견소식이었다.

공화국에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니그리 안아주었을뿐 아니라 좋은 집까지 마련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었다.

그 소식은 《탈북자》들속에서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

박정숙녀성의 기자회견소식을 듣고 우리의 결심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그래서 중국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남쪽땅을 빠져나와 그토록 오고싶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총련조선선보사 기자:김광혁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공화국에 오지 못하였는데 남쪽에 있는 어머

니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한다.

대답(김광혁):우리가 조국으로 오면서 제일 마음에 걸린것은 어머니였다.

남조선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조국으로 간다는 말을 차마 할수 없었다.

《탈북자》들의 일거일동을 매일매시각 감시하는 그 삼엄한 남쪽땅에서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계획이 드러날수 있고 그 경우 우리 운명은 영영 끝장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중국 심양에 도착해서야 전화로 어머니에게 조국으로 간다는것을 알리었다.

저는 어머니에게 용서하십시오, 나도 처도 아이도 더이상 남쪽에서 살래야 살수 없습니다, 조국에 가서 마음편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놀라와하면서도 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것을 알고는 더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어머니는 그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러나 나의 운명은 지켜주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나의 친어머니도 주지 못한 사랑과 정을 주고 운명도 미래까지도 다 맡아 지켜 주고 빛내어주는 따사로운 품이라는것을 나는 너무나 늦게야 깨달게 되었다.

대답(고경남):우리가 피스러운 마음을 안고 평양비행장에 내렸는데 뜻밖에도 해당 일꾼들이 나와 따듯이 손잡아주며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우리가 남조선으로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세라 야밤삼리에 비행기에 짐짝처럼 실려 뒤자리에 숨어있어야 했고 내리서는 여드림 침한 좁은 통로로 죄인처럼 호송되어 피괴정보원으로 끌려갔다.

조국에 도착하여 꿈에도 보 고싶던 부모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도 하였고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살림까지 받았다.

정말 모든것이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대답(김광혁):조국을 위해 한 일도 없고 죄되는것밖에 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조국은 죄많은 우리를 따뜻한 품에 너그리 안아주었다.

김정 조국은 우리 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어머니조국에 충정을 다하며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그는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할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 있다.

김광혁은 남쪽에 있는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정을 다하며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것을 표명하였다.

그의 안내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조선피괴들에게 속히워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하고싶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저주로운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주저없이 공화국으로 돌아오라고, 그 길만이 자기의 존엄과 참된 삶을 찾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어머니조국은 자기의 잘못을 짐심으로 뉘우치고 공화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따듯이 안아주 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신기자

남조선피괴들의 비열한 모략과 회유기만책동으로 남쪽땅에 끌려갔다가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으로 돌아온 김광혁부부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 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먼저 김광혁이 발언하였다.

그는 자기의 지난날이 너무도 피스럽고 수척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말 뭐라고 속죄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난 시기 학습과 조직생활을 하기 싫어하였다.

그러나나니 고난의 행군시기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법월경까지 하였다.

그후에도 돈에 눈이 어두워 2008년 3월 또다시 플래 비법월경하였다.

중국에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김희산이라는자를 알게 되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남조선피괴들과 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거간꾼이었다.

당시 나는 병에 걸려있었는데 어느날 그자가 찾아와 남조선에 가면 병도 고칠수 있고 돈도 마음대로 벌수 있다고 꼬드겼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과 술까지 사먹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었다.

처음에는 남조선으로 간다는것이 조국을 배반하는 길이었기에 선뜻 결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알아차린 늙은 집요하게 회유하였다.

신념이 확고하지 못했던 나는 그의 얼림수에 넘어가 남조선으로 갔다고 하였다.

그자는 남조선에 있는 어떤 자와 전화로 《보종인》이 어떻고 돈이 얼마고 하면서 함참 속덕거리고 나서 이제는 다 됐다 하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가면 그 대가로 자기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고 보충서를 쓰게 하였다.

이 거간꾼들은 피괴정보원놈들의 조종밑에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고는 당국에서 돈을 받고 월남도주환자들에게서도 돈을 뺏아내며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고있다.

그후 나는 이놈저놈의 손으로 계속 넘겨지면서 중국 곤병에 갔다.

안배자를 따라 어느 한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명의 우리 사람들이 와있었다.

그들을 끌고온 거간꾼들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남조선에 가면 일인당 돈을 얼마씩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채용중에 손지장까지 찍게 하였다.

그리고는 수시로 남조선과 전화를 편지를 가지면서 초소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우리를 타이의 방곡코에 끌고갔다.

거기에 도착한 우리는 남조선에서 온 자를 따라 어느 한 건물에서 가서 하루밤을 지낸 다음 《난민 수용소》라는 데로 끌려갔다.

《난민수용소》는 타이에 불법입국하는 사람들을 관리처리하는 곳인데 남조선피괴들은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여가기 위한 피괴들의 책동은 참으로 교활하고 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나는 장사에만 눈이 어두워 다니다가 어느날 시장에서 안호근이라는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자로 말하면 우리 제도에 매

한 양심을 품고 사람들을 비법월경시켜 남조선피괴들에게 넘겨주는 놈이었다.

그자는 처음에 나의 환심을 사보려고 옷가지들을 사주었다.

나는 접차 그 놈을 믿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는 꼬임에 홀리워 2008년 9월에는 비법월경까지 하였다.

그후 그자는 나에게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기 시작하였으며 돈벌이감을 마련하였으니 기다라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불들어놓았다.

그동안 나는 그자가 안내해준 집에 숨어있으면서 남조선TV극과 섹션적인 노래들을 보고 들었다.

그 과정에 남조선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이 짝뜨게 되었고 또 안호근은 남조선에 가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계속 나발을 불어댔다.

나는 그 말에 넘어가 남조선에 가면 잘사는 사람과 결혼하여 돈도 많이 벌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남조선에 대한 환상에 빠진 나는 그자의 말에 넘어가 고말았다.

그후 나는 안호근의 소개로 남조선에 있는 김경희라는 녀자의 조종과 그가 뿌리는 돈에 매수된 거간꾼들에 의해 타이까지 가게 되었다.

타이에 이르자 김경희는 나에게 전화로 이제는 북으로 끌려갈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남조선으로 오면 자기에게 그동안의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오름을 박았다.

나도 타이의 《난민수용소》에서 두달가량 갇혀있다가 남조선 피괴들의 조사를 받고 남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듯 남조선피괴들은 해외 각지에 저들의 앞잡이들을 거미줄처럼 늘어놓고 그들을 통해 우리 사람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놀음을 계획적으로 벌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겪으면서 비로소 놈들에게 속히었으며 거기에 있어야 죽을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아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러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기 위한 리명박패당의 교활한 회유기만책동의 일단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다.

김광혁부부 남조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고경남):사실 우리는 남조선에 가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남쪽땅에 가보니 남조선이야말로 빗봉은 개살구하고 씨올대로 썩은 사회였다.

TV에서 나를 유혹하였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었다.

내가 살게 되어있던 광주시의 집만 보아도 그렇다.

매우 넓은 쪽방인데다가 구석 구석까지 구멍이 있어 바람이 불어오는가 하면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악취까지 풍기었다.

지금껏 환상속에 그려보았던 집이 과연 이런 시궁창같은것이였는가 하고 생각하니 억이 막히고 눈물이 났다.

소름끼치는 그 집에서 살수 없어 다음날로 뛰쳐나왔다.

그후 나는 변변한 거처지가 없이 떠돌아 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탈북자》들의 95%이상이 제집이 없이 세방살이를 하고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집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하루 한끼 제대로 먹는것도 문제이다.

언제인가 TV로 《탈북자》자매가 산속에서 짐승처럼 등산객들이 산다버린 음식찌꺼기를 씹고 일년내내 오물을 주먹으로 한지에서 나무잎을 덮고 살고있는데 대하여 울분을 토하는것이 방영된적이 있다.

나의 처지도 크게 다를바 없었다.

굶기를 밥먹듯 하였고 남이 쓰

다버린 물건짝들도 주어모았다.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에게 명색상 생계비라는것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한몫도 지탱하기 어려운 보잘것 없는것인데다가 그나마 결혼하거나 아무 직업이나 구하면 즉시에 자동적으로 끊기우고만다.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결혼신고서를 내자마자 생계비가 끊기었다.

우리 두명의 생계비를 다 합쳐야 한달 세금이나 겨우 낼 정도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놓았는지 막막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처럼 세금종류가 헤아릴수 없이 많고 그 돈 또한 생눈알을 뽑아먹을 정도이다.

우리는 그돈끝에 가정을 이룬지 두달도 못되어 다시 생계비를 얻기 위해 형식상의 리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생계비라는것은 《탈북자》들을 살려주는것이 아니라 가난에 쪼들리게 하고 직업도 가정도 제대로 가질수 없게 하는 무서운 울가미이다.

대답(김광혁):직업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와 안혜는 생계비로는 도저히 살수 없어 직업을 구하면 쫓겨나야 하여 여기저기 찾아 헤매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하였다.

우리는 끝내 독특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손전화가부품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간별로 일하는 일거리를 겨우 잡았다.

회사측에서는 나에게 누구도 하기 꺼려하는 제일 위험하고 힘든 일만 팔라 시키었다.

그리고 안혜에게는 3명이 해야 할 일감을 주면서 보수는 한명분만을 주었다.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참지 못하고 하루는 내가 작업하던 손전화를 바닥에 돌려치며 왜 돈을 적게 주는지 따져 물어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것들이 어디 시웠는가 하고 하면서 우리를 내쫓았다.

대답(고경남):그후부터 남편은 썩어빠진 남조선땅에 왜 왔는가 고 울분을 토하면서 늘 술에 취해있었고 그로 하여 병까지 되 지었다.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은 온갖 행태와 따돌림으로 하여 우울증과 정신장애를 비롯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나도 직업을 구해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남의 집 아이보게도 해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해보았으며 위생실청소도 해보았다.

남편이 얇아 누운데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자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해진 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구에 있는 한 간호학원에 들어갔다.

간담고글에 학원에 들어갔으나 거기에서 당한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수 없다.

교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수 없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점심식사로 따로 해야 하였다.

같이 식사하게 되는 경우에 남쪽사람들은 내가 마련해준 음식에는 독약이라도 친것처럼 애당초 수저를 대려고 하지 않았다.

환자들마저 《탈북자》한테서는 주사를 안맞겠다고 하면서 눈까지 흘기며 피해버리는 정도였다.

그 모든 행태와 멸시속에서도 나는 자격증만 손에 쥐면 직업을 얻을수 있다 고 생각하면서 해산한지 열흘만에 손과 얼굴이 튕러 부어오른 상태에서 학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몸에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을 이겨내며 학원으로 가야만 했던 나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일로 하여 지금도 산후탈로 고생하고있다.

병까지 얻으며 손에 쥘 자격증도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살기가 힘들어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준

다고 하기에 나중에는 교회당에 까지 찾아다니었다.

월남도주자들의 처지는 이처럼 참혹하다.

《탈북자》들은 자기들의 불행한 처지를 절망하다가 타락하여 범죄의 길에 들어서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남조선에서 신문을 보았는데 《탈북자》들의 범죄율은 남조선 주민들에 비해 2배이상이나 되고 자살률은 3배나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조선은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살수 없는 인간생지옥이며 더우기 《탈북자》들에게는 한치의 발도 붙일수 없는 불도의 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지금 리명박패당은 월남도주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보략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에서 직접 체험하였거나 보고 들은 사실들이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대답(김광혁):남조선TV와 방송에서는 《탈북자》들을 내세워 공화국을 비방증상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있다.

《탈북자》들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공화국을 헐뜯고 사람들의 인식을 호리게 하는 거짓말을 계속 떠들어 대고있다.

TV에서는 악질 《탈북자》단체들이 공화국을 모해하는 빠라를 뿌리기 위해 군사분계선지역에 나갔다가 그곳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싸움까지 벌리는 장면들도 비치곤 하였다.

피괴당국은 《탈북자》단체의 개별적인 활동이요 뭐요 하면서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것처럼 놀아내지만 실지는 돈까지 대주며 피괴 부추기고있다.

우리는 그들을 돈을 미끼로 《탈북자》들을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끌어들이거나 《중인》으로 둔갑시켜 《강연》이나 《전시회》니 하는것들을 계속 벌여놓고있다.

《탈북자》단체들은 돈벌이를 위해 저저마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다, 어쩐다 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7월 전영철이 공화국에서 특대형과괴행위를 감행하려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매우 분격해하였다.

대답(고경남):피괴들은 《탈북자》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피괴정보원과 《하나원》에 몇달씩 가두어놓고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새막기 위한 교육을 주입시킨다.

내가 피괴정보원에 갇혀있던 때의 일이다.

《탈북자》들은 하루종일 끈질긴 조사를 마치고 나서 감방에 오면 또 공화국을 헐뜯는 선전목화물을 보아야 한다.

하루는 6.25전쟁을 북에서 일으켰다는 내용의 목화물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한것을 모서 보지 않았다.

나도 놈들의 취조에 치켜 쓰러진채 눈을 감고있었다.

감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그 광경을 본 놈들이 방에 들어닥치더니 밤새 재우지 않고 위생실청소를 시키는것이였다.

《하나원》에서는 매일 공화국을 헐뜯는 《강연》 놀음을 벌리고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공화국을 비방증상하는 글들을 쓰게 하고는 점수에 따라 돈을 주고있다.

남조선에는 종종 사람들이 문학적품을 쓰면 돈을 얼마큼씩 준다는 광고가 여기저기에 나붙는데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내용들이거나 《탈북자》들이 쓴것이면 우선적으로 당선시킨다.

지나해 12월 19일 담당형사가 전화로 푸짐히 먹을 일도 있으니 우리 부부를 몇가지 어디에 오라고 하는것이였다.

가고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못갈게 굴 것 같아서 집을 나섰다.

거기에 가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와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식탁을 마주한 우리는 천만땀방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통곡을 해도 씨런치 않을 그 자리에 음식상까지 차려놓고 우리를 끌어들이던 놈들이야말로 천하에 무리한들이고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짐승들이었다.

이렇게 리명박패당은 월남도주자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모략책동에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것은 다름아닌 공화국의 영상을 호러놓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통일선보사 기자:김광혁부부가 어떻게 되어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 올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김광혁):우리가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 올 결심을 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다.

나는 남조선에서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면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망상하였다.

그로서 고난의 행군시기 중국에 비법월경하였던 어머니까지 남조선으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곁에 있고 가정도 있었지만 살길은 갈수록 막막해졌다.

도저히 살래야 살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잊어보려고 술에 취하기도 하였지만 되사였다.

알고있는 나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안혜의 처절한 모습을 볼 때면 막 미칠것 같았다.

나의 머리속에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도저히 발붙일수 없고 어디에 하소연도 할수 없는 부정의한 사회, 가는 곳마다에서 행태와 멸시만 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사회, 인간의 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개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절망 뿐이었다.

정말 남조선은 돈과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인간의 초보적인 삶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며 앞날에 대한 희망조차 기대할수 없는 암흑천지이고 인간생지옥이다.

하기에 나는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남조선에 온 자신을 끊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죄많은 우리를 조국에서 어떻게 받아주겠는가 하는 불안과 걱정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다.

피괴들은 《탈북자》들이 북에 돌아가야 감옥에 가고 목숨도 담보할수 없다고 악선전을 하고있다.

대답(고경남):그때 아버지의 말에 나도 선뜻 찬성하였다.

사실 나는 남쪽에서 살려고 간 것이 아니었다.

돈을 벌여볼까 하다가 얼리워 남조선으로 끌려갔기때문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속에 날을 보내었다.

광주의 소름끼치는 집에서 하루밤을 보낼 때에 아이를 낳을 때 《탈북자》라고 참혹한 행태와 멸시를 당할 때에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며 조국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결심을 들은 순간 기뻐했다.

우리가 조국으로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였다.

고통과 피로움을 주는 《탈북자》라는 딱지는 지식에게까지

악착스럽게 달라붙는다.

남쪽에서는 《탈북자》 자녀라고 하면 어디 가나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매를 맞고 물리워 아이들이 집밖에 나가는것도 꺼려하고있다.

그러다나니 《탈북자》 자식들은 무섭기도 하고 마음까지 이그러져 학교에 제대로 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다.

《탈북자》 자식으로 멸시받으며 사는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절망과 비판에 빠져 탄불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될가와 두려웠다.

더우기 《탈북》 녀성들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은 남조선에 대한 나의 환멸과 증오를 더욱 불리워왔다.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유흥업소들에 끌려가 성노리개로 유린당하다가 무고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것이 《탈북》 녀성들의 비참한 운명이다.

변태적인 남조선사회에서 의지할데 없는 《탈북

# 반북대결을 지속하려는 불순한 공약

남조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박근혜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이라는것을 내놓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정상화》니,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니, 《국가안보실 신설》이니 뭐니 하며 잡다한 말을 많이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후보의 이번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이란 여론을 기만하는 술수이고 반통일보수패당이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꾀병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체질적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들은 지금껏 민족의 분열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으며 북남대결을 끝없이 선동해왔다. 북남관계를 사상누설없는 과격으로 몰아넣은 현 리명박 《정권》만 봐도 《새누리당》을 집권여당으로 하는 보수 《정권》이다.

《새누리당대선》 후보가 들고오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

며 랑전시대의 폐기품에 불과하다. 리명박도 북남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리판사무소 설치》니 뭐니 하는 잡꼬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가 만사함을 웃긴적이 있다.

실제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을 우선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표이며 조국통일의 대장이다. 북남관계의 발전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도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파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리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총과산났는가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수가 없다. 굳이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막연하게 《기초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실천》이니 뭐니 하는 공허한 말만 뉘뉘었다. 그것은 그의 립장이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도난 약속어음》, 《용공 리적문서》라고 한 헌 전권자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는 이번엔 변하지 않은 대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표이며 조국통일의 대장이다. 북남관계의 발전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도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파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리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총과산났는가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수가 없다. 굳이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막연하게 《기초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실천》이니 뭐니 하는 공허한 말만 뉘뉘었다. 그것은 그의 립장이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도난 약속어음》, 《용공 리적문서》라고 한 헌 전권자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는 이번엔 변하지 않은 대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표이며 조국통일의 대장이다. 북남관계의 발전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도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파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리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총과산났는가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수가 없다. 굳이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

집권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보수당국이 반공 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권위원회》는 공무원 교육용으로 《북인권》과 관련한 기록편집물을 제작하고있다는것을 공개하였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말까지 완성되게 될 이 편집물에는 그 무슨 북의 《인권침해 사례와 《탈북자》, 《리산가족》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기하면 지난 3월에 있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리명박대당은 《정치범 수용소문제》니, 《인권개선촉구》니 뭐니 하고 또다시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저들의 심각한 반인권적죄악을 가리우고 인권문제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려는 추악한 방증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민이 정권과 생산수단 등 모든것의 주인인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수도 없다.

오히려 심각한 반인권적죄악들이 꺼리낌없이 자행되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리명박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이후에만도 남조선에서 《통산참사》로 불리우는 철거민살사건, 최후액과 전자총기까지 동원하여 파업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집안한 생중포로로조달입압시킨, 막대한 등록금으로 인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여러명의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던 교원마저 자살케 한 《한국과학기술원자살사태》, 가혹한 구타와 따돌림을 비롯한 악습적병영문화로 여러명의 죽음을 초래한 해병대총기관사건, 청와대의 공공연한 배후조종밑에 강행된 민간인불법사찰사건 등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인권침해사건들만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10살도 안된 어린 소녀들을 내내에 랍치하여 성폭행을 가하고 자식이 부모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더구나 《세기의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을 받으며 철폐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보안법》에 의한 인권피해는 이루다 말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참혹한 인권침해는 비단보자기에 싸놓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노릇이 아닐수 없다.

원래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배겨있는

리명박대당은 집권 첫날부터 잊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반공화국도발의 첫째가는 구실로 삼아왔다.

그 일장에 선것이 다름아닌 남조선의 《인권위원회》이다.

특히 리명박의 최측근이며 반공광신자로 알려진 현명철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에 들어앉은 후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2010년 4월 현명철의 직적인 지시하에 《인권위원회》안에 《북인권기구》라는것이 새로 조직되었으며 《북인권문제》가 인권위의 입무》라는 터무니없는 나팔이 울려나왔다. 2010년 12월 《인권위원회》것들은 《대북방송과 배라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떠들었다는거만 지난해 2월에는 《인권위원회》안에 《북인권실고센터》와 《북인권기록관》을 설치하고 《신고》를 부추기는 망동을 부리었다.

실지어 2011년 10월에는 이른바 《국군포로》와 《람포피해자》, 지어는 북의 일반주민들까지 남조선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담긴 《인권기본계획초안》이라는것을 만들어내는 추태까지 부렸다.

얼마나 반공화국인권도발에 광분하였던 현명철이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러온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통탄지같이 《북인권실태자료》라는것이 담긴 가방을 넘겨주려다가 거부당하는 망신까지 당하였는가.

하기에도 남조선인민들은 《인권위원회》가 《북인권위원회》인가. 라고 비난하면서 리명박대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과 도발소동을 규탄배격하고있다.

하지만 리명박은 올해초 각계의 항의와 비난을 무릅쓰고 현명철을 또다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에 임명하였다.

사실들은 리명박이당이야말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원흉, 동족대결의 장본인이며 《인권위원회》라는것도 남조선인민들의 인권문제해결이 아니라 보수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발에 전력되고말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송냥이는 죽는 순간까지 물고뜯는 자기의 분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임기말까지 반공화국인권도발을 일삼는 리명박대당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극악한 동족대결분자로 력사에 남게 될것이다

박철남

##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원흉

얼마전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외교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보인 원장 등을 불러다놓고 《긴급의 교안보장관》 회의라는것을 벌여놓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서 현 집권자는 《북의 대선》개입이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의 도발》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그 누구의 모략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피대를 두었다.

《도발》은 도대체 누가 하고, 또 《개입》은 누가 하는지 초보적인 정보세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정치송장의 망령든 푸념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소동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리명박 《정권》의 비호와 지지속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 공화국을 자극하는 배라살포놀음을 때없이 벌

리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2012년 호국》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소동을 외세와 야합하여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하였다. 지어 현 집권자는 물론 보수집권세력들속에서 그 누구의 《개혁, 개방》을 떠들며 주재님께 남의 잔치상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며 간섭까지 하고 있는 판이다. 날로 우심해지는 리명박 《정권》의 동족대결과 전쟁소동에 공화국은 그에 따른 대응책만을 세울때마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저들이 저지른 도발과 간섭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 누구의 《도발》과 《간섭》을 운운하였으니 이야말로 도적이 제발 저러하는 격이다.

문제는 현 집권자의 《도발》과

《간섭》타령이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불순한 목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집권자는 《새누리당》이 재집권실현을 위해 떠드는 《안보》타령에 김관진과 같은 전쟁광신자를 내세워 호전방말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기껏해서 연평도이나 찾아가 대결망동을 부리었다.

그러던 그가 전면에 나서서 《북풍》조작에 열을 올리는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력대 《대통령》치고는 처음으로 리명박의 아들과 《청와대》의 측근인물들이 내곡동주재부지구립사건으로 《특검》에 줄줄이 끌려다니고 그 수사과정에 현 집권자까지 개입한 정황이 제기되는가 하면 여기에 해명되지 않은 BBK사건까지 또

다시 제기되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래년에는 감옥신세를 져야 할 처지에 있는자가 바로 리명박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세론》을 떠들던 《새누리당》의 재집권기도가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의해 물거품으로 될 지경에 이르러 앞으로의 리명박의 운명도 가늠할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바빠난 리명박이 그 무슨 《도발》과 《간섭》을 떠들며 《북풍》소동에 앞장서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리명박의 《북풍》타령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민심은 이미전부터 리명박을 《죽은 오리》로 치부하면서 그의 말에는 귀를 막은지 오래다.

제 말을 다 산 리명박은 로망든 늙은이처럼 허튼 소리나 할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제 운명이나 지켜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응철

동, 이런 행위에 의해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천만한 화약고 되고말았다. 전쟁위 기세에서 남북관계개선, 남북협력은 말이 안된다.

《실용정부》는 6.15이후 《잃어버린 10년》, 《피추기》로 시비해왔는데 정말로 잃어버린것은 리명박 집권의 5년이라 해야 할것이

자회관 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생교수가 《대선관련 대중심리》란 강연을 했는데 그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국민들에게 마음편히 잘 사는것이 실리이고 실용이다. 그래서 잘살게 해주었다는 《실용》과 《실리》간만 다를 뿐 잃어버린것은 리명박 집권의 5년이라 해야 할것이

있다. 정말 MB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

그의 발언을 반증이라도 하듯 남조선의 《오마이뉴스》 10월 20일자에 《지난 《대선》대 경계를 살려주었다는 리명박후보를 뽑았지만 경제는 살아남지 않았고 서민 99%는 더 열락했다.》는 강릉시 중앙시장 잡화가게상 김순옥의 말이 실렸다. 젊은이들이 세상살기 두려워서 목숨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남쪽이 세계 일등이라는 사실은... 같은 동포로서 괴롭기만 하다.

《실용》 5년간 금강산관

있는데 누구의 말이 가식이고 진심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5년이 다시 되풀이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기자: 더 하실 말씀은...

김준성: 남쪽이 실용 《대선》시에 후보들 모두가 《민생》과 《복지향상》을 공약으로 내걸고있는데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은 국민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 조선반도가 편안하고 사람이 살아남고있어서 그 다음에 복지기고인생이다. 평화로운 조선반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중국에는 내 조국인 평화통일, 이를 위해 잃어버린 5년이 되풀이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 투표참가를 가로막으려는 반역정당을 규탄

남조선의 참여연대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국민행동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투표참가를 가로막으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연장을 주장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라는자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이 피곤할것이라느니 뭐니 하였고 이 당의 《대통령선거》후보는 비

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거부사를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연장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정제모세니 뭐니 하고 물어대며 소란을 피우고있다.

발언자들은 지금 각지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리행 행사할수 있도록 《선거》일을 휴식일로 정하고 퇴근후에도 투표할수 있게 마감시간을 연장할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있으며 현재 10만명이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1 000만명을 가까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

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당일날에도 일하러나가야 하며 일자리를 빼앗아 투표에 참가할 시간을 요구하지 못하고 꼬박 현장을 지켜야 하는것이 현 실태라고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투표참가를 막아나서며 그 무슨 《선거》비용을 운운하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국민모두의 투표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계와 경제협력의 진도는 어떻게 보는가?

김준성: 당장은 막대한 민족의 《대선》결과에 조그마한 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해의 사는 내가 혼신할 권한은 없지만 현사태 악화를 두고 민족정성으로서 말하지 않을수가 없다.

5년전 12월 남쪽에서는

동, 이런 행위에 의해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천만한 화약고 되고말았다. 전쟁위 기세에서 남북관계개선, 남북협력은 말이 안된다.

《실용정부》는 6.15이후 《잃어버린 10년》, 《피추기》로 시비해왔는데 정말로 잃어버린것은 리명박 집권의 5년이라 해야 할것이

있다. 정말 MB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

그의 발언을 반증이라도 하듯 남조선의 《오마이뉴스》 10월 20일자에 《지난 《대선》대 경계를 살려주었다는 리명박후보를 뽑았지만 경제는 살아남지 않았고 서민 99%는 더 열락했다.》는 강릉시 중앙시장 잡화가게상 김순옥의 말이 실렸다. 젊은이들이 세상살기 두려워서 목숨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남쪽이 세계 일등이라는 사실은... 같은 동포로서 괴롭기만 하다.

《실용》 5년간 금강산관



## 기만적인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중지를 주장

남조선의 강경마초회, 제주군사지리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기만적인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중지를 요구하여 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었다.

회견문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2013년 《국회》에산문을 전부 삭감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미군을 위한 해군기지로 건설하기때문이라고 회견문은 규탄하였다.

회견문은 당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있는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새누리당》의 뿌리 《유신》 독재의 죄악상을 파헤친다 (6)

###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민족분열사를 돌이켜보면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불신은 《유신》독재자가 들어선이래 극도로 첨예화되었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채자마자 박정희군독재자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 밑에 높아가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반공》을 《제1국시》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로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할것》을 떠들면서 동족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는가 하면 미국상징을 찾아가서도 《미국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통일하지 않겠다.》고 맹약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의 북남협상상제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북남대화

에 마지못해 끌려나온 박정희 《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 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남북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걸수 없으며 또 믿을수 없다.》, 《지나친 락관은 금다》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백지화하는 길로 나갔다.

한편으로는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느니 하며 공동성명에 서 합의한 자주의 원칙을 부정해나섰는가 하면 《남북대화가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고칠 리유와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떠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반공법》과 《보안법》에 걸어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처럼 북남공동성명을 헌 후지장처럼 쉼버린 박정희 《정권》은 미국상징의 부추김일에 1973년 6월 남북

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민족의 분열을 조착시키기 위한 《두개 조선》정책을 공공연히 들고나왔다.

이어 《교차승인》을 떠들면서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하였으며 북남간의 《불가침조약》과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다.

박정희군사독재세력은 리승만의 《북진통일》의 재판인 《승공》과 《밀공통일》을 운운하면서 남조선군명령을 계속 늘이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으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공화국북남부를 반대하는 전성도발책들을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분계

선일대에서 공화국에 대한 무장도발은 1968년에만 하여도 1만여건이나 있었고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부터 1975년 9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6만 8 900여건에 달하였다.

《유신》독재자는 기만적인 《남침위협》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많은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조작해냈는데 1974년 한해에만도 《서해사건》, 《용물도사건》, 《8.15적격사건》, 《명달사건》 등 10여건이나 된다.

북남대결과 민족분열의 상정으로 되고있는 콩크리트장벽도 바로 《유신》독재시기에 쌓아진것이다.

《유신》독재자가 1977년부터 조국통일과 우리 민족을 영일히 돌로 갈라놓을 흉계 밑에 방대한 자금과 노력, 자재를 들이밀어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에 쌓은 콩크리트장



#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츄리꽃무늬를 새긴 돌러일바닥이 유리같이 알큰거리는 넓은 홀에서 김영심 제1목욕탕 지배인이 하는 말이다.

1955년 6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건설장을 찾으시어 나라에서 처음 지은 목욕탕이니 중앙목욕탕이라고 하지 말고 제1목욕탕으로 부르자고 하시고 7월에 준공을 앞둔 이곳을 또다시 찾으셨다고 한다.

제1목욕탕에는 인민을 위해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다심한 은정도 깃들여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의 손길에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봉사기지를 훌륭히 개건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자 봉사를 빨리 시작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 제1목욕탕은 언컨 평이 지난 시기의 3배로 늘어나고 모든 조건과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대중편의 봉사기지로 꾸러졌다.

1층에는 컴퓨터화된 안내판이 있고 대충탕과 가족탕, 청량음료매대와 맥주봉사실이 꾸러져있다.

한중간들이 제일 흥성이고 있었다. 먼적의신한증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아픔이 멎으며 백혈구와 림프구가 집중되고 영양물질공급이 잘된다고 한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장활동이 원활해지며 불필요한 물질들이 체내에서 인차 배설되는 효과가 뚜렷한 등 좋은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나무한증이며 육돌한증도 특색있었다.

역전동에 산다는 한영희녀성은 먼적의신한증을 하고나니 이발아픔이 멎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2층의 리발실과 미용실, 미안실들도 돌아보

았다.

혈색좋은 얼굴로 싱글병글 웃으며 목욕탕을 나서던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라빈직장 노동자 김성국은 《목욕과 리발을 하고 맥주까지 마시니 정말 기분 상쾌합니다.》라고 말하

는 것이었다.

방금 미안실에서 봉사를 받고난 한 중년녀성의 얼굴은 나이와 다르게 젊어 보였다. 봉사를 받은 사람 누구나 환해지고 건강기가 넘쳐나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지하물놀이장도 찾았다.

찬기운이 느껴지는 때이지만 물놀이장에는 정화된 더

운물이 남실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에서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넓은 수영장에서는 어른들이 헤엄을 치는가 하면 덕수와 물안마도 봉사를 받고있었다. 한겨울에도 혼 혼하게 운영된다는 물놀이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도 후더워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인민들은 거저나 다름없는 녹은 값으로 누구나 봉사받을 수 있다.

나라의 곳곳에 이런 훌륭한 대중편의봉사시설들이 늘어나 인민들의 기쁨은 커만 간다.

본사기자 박단희



## 보건제도를 통해 본 두 현실

주제41(1952)년 11월 13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대하여》가 발표된 날이다.

그 때로부터 60년이 되어온다. 이 병원이래고 대답한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기때문이다.

보통진찰비 1회당 1000US\$, 종합검진비 2000US\$, 총수술비 1만 5000US\$, 해산수술비 2만US\$, 콩팥이식수술비 5만US\$, 위암수술비 5만 5000US\$, 심장수술비 10만US\$... 부르기에도 숨가쁜 우의 수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도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는 치료항목은 수없이 많다. 구급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보통 10만~20만US\$를 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

의 경우 하루입원비만 해도 1000US\$가 훨씬 넘는다.

자본주의나라 병원들의 사망은 사람들의 건강진진, 환자치료가 아니라 오직 돈을 버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들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치료비를 높이 정하고 환자들의 죽음을 털어내고 있다.

여기에는 환자들이 알거나 모르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 있다. 레한만 상담비, 검사비 등 공개적인 비용외에 광고비, 서류처리비, 지어 의료보험업자수수료까지도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남조선에서도 부유층들은 수백만US\$를 랑진하면서 치료를 받지만 빈곤층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온갖 질병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개보다 못한 팔자》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고 있다.

부유층의 고대광실에서 사는 개들은 동물전문미용실에서 털을 다듬고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과 각종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개의 털을 다스리는 비용은 사람의 머리를 다스리는 비용의 2~3배, 개치료비는 사람의 치료비보다 더 높다고 한다.

실제로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의 해산방조에 20만원의 돈이 들지만 동물병원에서 개가 새끼를 낳는데 드는 돈은 30만~40만원이며 개 화장장도 사람의 화장장보다 4~5배 비싸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없어 해산방조를 제대로 못 받고 병이 나도 치료를 못 받는 남조선의 녀성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개보다 못한 팔자》라는 신세타령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듯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돈이 없어 진찰도 받지 못하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병이 나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죽어가고 있다.

평범한 근로인민이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리는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이 개보다 못한 처지에서 신음하는 자본주의제도.

과연 어느 제도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제도인가.

본사기자 김춘경

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고 1953년 1월 1일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가 실시되었다.

그러하여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병을 고치는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보건제도가 가결된 진지환경에서 마련되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의사가 환자를 찾다니며 치료해주고있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현대적인 병원들을 세우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주고있다.

모두가 손에 맘을 쥐고 공원을 관람하였다. 이처럼 감동적인 교에는 처음 보았다.

조선의 교에는 축전무대를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미국 《불사조》 회사 사장이며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인 퍼터 듀빈스키는 조선의 교에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배우들이 공중에서 어려운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회사의 《불사조》라는 명칭을 조선교배우들에게 맡겨주고싶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공중교예의 패권은 영원히 조선배우들이 쥔 것이다

국립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한 외국인들의 반향

중국에서 진행된 제10차 무한국제교예축전에서 국립교예단의 공연은 축전심사위원회 성원들과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교예가협회 명예주석이며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장인 하국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조선전쟁시기 문공단성원으로 전선공연에 참가하였다.

그때부터 조선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을 체득하였다.

조선교예배우들은 10차례 걸쳐 진행된 무한국제교예

축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밑에 조선의 교예는 세계에 명성을 떨쳐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예예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그이의 슬하에서 자라난 조선교예배우들은 이번 축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국교예가협회 부주석 리서녕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계교예를 연구하는 과정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교예리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의 교예는 인간의 창조적재능을 구현하고있다.

국제교예축전에서 조선의 교예에 패권을 쥐는것은 독창적인 교예리론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중국교예가협회 부주석 녀근복은 조선교예배우들은 축전 기간중 공중4회전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하였다. 정말 대단하다. 공중교예의 패권은 영원히 조선배우들이 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국가교예학교 교장이며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인 마까로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중뒤로4회전돌아잡기, 공중뒤로 돌면서 옆으로 4회전돌아잡기, 눈가리고 공중뒤로4회전돌아잡기는 조선교예배우들만 수행할 수 있다.

공연에 교예학원 학생이 출연하였다는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조선의 교예발 전전망이 얼마나 위황한가를 잘 알 수 있다.

로씨야인민배우이며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인 보보프는 조선배우들의 교예는 감탄을 자아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공중에서 아슬아슬한 기교

동작들이 펼쳐졌다.

모두가 손에 맘을 쥐고 공원을 관람하였다. 이처럼 감동적인 교에는 처음 보았다.

조선의 교에는 축전무대를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미국 《불사조》 회사 사장이며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인 퍼터 듀빈스키는 조선의 교예에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배우들이 공중에서 어려운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회사의 《불사조》라는 명칭을 조선교예배우들에게 맡겨주고싶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수필: 련광정에서 올밀대까지

가을은 추억의 계절이기도 한것 같다. 련광정에서 올밀대에 이르는 정든 길은 이 나라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하얗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창전거리에서 새집들이를 하던 날 경상골에 태를 물었다는 할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그때 그는 련광정을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올밀대까지는 해방전에 유명한 기생집들이 죽 들어앉았던 곳》이라고 하였다.

돈 많고 권세있는 부자들만 찾아들던 유흥지, 그 옛날 봉건통치배들이 흥청망청 놀아대는 웃음소리 높았던 곳이다.

가을경치가 절경인 올밀대에 올라 아름다운 대동강변을 바라보노라니 언젠가 이곳에서 만났던 한 해외동포녀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올밀대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면서 여기가 계막지갈은 오막살이들로 숨이 막막하던 골안, 내가 살던 그 고노골이 훑길 훑은가고 하며 감동에 겨워하던 백발의 녀인...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이야기들이다.

전후부터 경상동에서 살아온 나는 련광정에서 올밀대까지는 눈을 감고도 다 안다자 부하였다. 어디에는 어떤 기묘한 바위가 있고 얼마쯤 더 올라가면 멋진 세가닥 소나무가 있다.

대동강에 무지개다리 유류교가 일어섰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잡고 제일먼저 다리를 건너보았다. 오류관이 건듯 추겨들린 모습을 드리낼 때도 아바트창문에 팔을 고이고 오래 바라보곤 하였던것이다. 천리마동

상이 솟아오르고 평양학생소년전이며 인민대학습당이 일떠서는 모습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만수대언덕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인다.

유치원시절에는 강촌거리며 모란봉으로 뛰어올랐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대학입학시험준비를 하느라 그저 발밑만 보면서 울랐고 대학졸업을 앞두고는 부푸는 가슴을 들먹이며 두팔 벌리고 안기던 나의 공원이 그 나의 사색터, 나의 보금자리였다.

가을의 풍만한 정서가 못잇을 추억으로부터 오늘에로 나를 떠밀어준다. 올밀대에서 내려다보니 도시 한복판을 줄기차게 뻗어간 승거리리대동로에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마치도 알알이 여문 풍년난가리처럼 우물우물 다가온다. 평범한 인민들이 북을 누리는 창전거리살림집들, 인민극장이며 해맞이식당, 신경식당, 학의 무리가 내려앉은것 같은 유흥판이며 아동백화점.

나의 동심에 사진적혀졌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진 대동강변의 풍경이다. 전후 립시주력으로부터 평양에 처음 일떠선 5층짜리 아바트로 이 사할 때 중경같이 척 들어서지 못했다. 오마가. 아바트마당에 자리잡은 경상유치원의 첫 원아였던 내가 그때에 지금처럼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유치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평양이 생겨 수수천년, 우리 조상들이 꿈아온 《평양8경》의 절반이 있는 이곳이다. 지금도 련광정기둥에는 선종, 현종, 속종, 예종대에 걸쳐 레부시랑, 한림학

사, 침서추밀원사 등의 높은 벼슬을 하였으나 권세에 아부하지 않은 고려의 이름난 시인 김항원의 시구가 걸려 있다. 그는 여기서 경치를 부감하면서 싯똥 붓을 들어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동두 집집산 (긴 성 한쪽면에는 늘실늘실 강물이오 큰 들판 동쪽머리엔 퍼엎퍼엎 산들씨) 라고 일필휘지로 내려쓰고는 해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그 아름다움을 더 표현할 수 없음을 한탄하다가 붓대를 던지었다고 한다.

《해동제일》 김항원이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5월1일경기장이며 창전거리에 넘치는 행복한 인민들의 얼굴이 비껴 흐르는 오늘의 대동강변을 보았더라면...

오늘의 이 절경은 자연이 선사한것도 아니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저절로 마련된 것도 아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빛내여 가시는 내 조국의 새 모습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만수대언덕에서 나날이 변모되는 이 절경을 보시고 환한 미소를 보내신다.

련광정에서 올밀대까지, 조국의 얼굴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 길을 걸으면서 나는 알았다.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나의 조국이 어떻게 일떠서는가를.

나는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미래가 달음쳐오는것을.

김노을



## 훌륭히 개건보수된 대성산유회장

대성산유회장이 훌륭히 개건보수되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아스팔트도로와 색보도블록크가 번듯하게 포장되고 유희기구들도 새옷을 입은것처럼 아름답게 도색되었으며 기계설비들도 새것처럼 정비보수되었다.

대성산유회장이 이곳에 건설된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전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념위천의 뜻을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대성산기슭에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될 새로운 유희장의 자리를 몸소 잡아주시어 1977년 도 특색있게 건설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정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것이 대관람차이다. 대관람차를 타고 유희기구의 정점에 올라가면 번모된 대성산유회장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으로부터 룡산(대성산)의 사철 푸른 소나무가 늦은 가을에도 푸르려있는 풍경이 멋있어 평양8경의 하나로 손꼽히던 대성산이 오늘날

을 안겨주었다. 대성산유회장이 얼마나 인기있었는가를 하는것은 이곳을 무대로 하는 유명한 희극영화가 나와 당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대성산유회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롭게 개건보수되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공중에서 제도를 따라 질주하는 관성력차와 관성단차,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우르르 한 느낌을 자아내는 우주비행선, 좁은 구역에서 신

나게 경주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유희시설들은 지난 시기와 변함없이 있었지만 새 기계처럼 정비되고 단장되었다.

유회장안의 남문식당과 소문봉식당, 차집 등 봉사망도 새롭게 꾸러졌다. 시원하게 뻗은 유희장구내의 도로들, 푸른 주단을 깔아놓은듯 유희장을 이채롭게 장식하는 잔디밭, 그 사이마다 들어앉은 휴식터들은 유희장의 면모를 더욱 돋구어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뒷모에 들어앉은 휴식터에는 유아적 인 동물조각상들과 크고작

은 벚설들, 조가비들을 방백케 하는 의자들이 보기좋게 배치되어 마치 동화세계를 방백케 하고있다.

어디를 둘러보아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지고 쌓였던 피로가 일시에 가셔진다. 수천년전의 고적인 대성산성 남문을 중심으로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유희장이 오늘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이렇듯 자기의 모습을 더욱 훌륭히 일신한 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 김철에 이어 황철에서도 단번성공

## -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소식 -

얼마전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강압연직장과 청년선재직장의 가열로들이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로 성과적으로 개조되었다.

그리하여 증류에 의한 조강 및 선재압연공정에 종지부가 찍혔다. 증량테루를 비롯한 압연장재를 증류가 아니라 공화국에 풍부한 석탄에 의거하여 팡팡 뿜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업로들에 실리가 큰 에너지 절약기술인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최근년간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먼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의 가열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여 현대적인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지난해 4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열간압연공정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인것은 최근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철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번에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조강압연직장과 청년선재직장에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를 새로 일떠세우고 그 정상운영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밀고나갔다.

황철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크게 은이 나타나고있다. 새 가열로들이 가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조강 및 선재압연공

정에서 한g의 증류도 쓰지 않고 수많은 증량테루와 선재를 생산하였다.

조강압연직장의 압연공들은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에서 가열한 강편이 종전가열로에 비해 매우 균일하게 가열되기때문에 압연도 잘되고 증량테루를 뽑으면 모양도 잘 잡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그야말로 통쾌한 단번성공이었다. 동해의 철의 기지에서 불렀던 통장훈을 서해의 철의 기지에서 또다시 부른 것이다.

그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의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피라는 사색과 탐구, 헌신의 노력은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는 단번성공의 결실을 끊임없이 안아오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조선회화는 동양화의 일반적특성을 띠면서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는 우수한 회화형식으로서 일찍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회화는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간결하고 섬세

## 훌륭한 미술형식 조선화

한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축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조선회화는 형태와 선, 색채, 명암을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생략

하면서 화면구도를 간결하게 하고 대상의 질적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오늘 조선회화는 사회주의민족미술의 주되는 회화형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되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화 《고려성균관의 가을》

## 건강상식 수면과 잘못된 견해 몇가지

◎ 잠은 하루에 8시간 자야 한다.

그렇지 않다.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잠을 보장하자면 평균 7시간이 필요한것으로 되어있으나 습관되면 5시간 30분~6시간도 충분하다.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잠시간이 3~4시간이면 충분하다.

◎ 나이가 들면 잠시간이 짧아진다.

로인의 경우 밤잠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어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65살이 지나면 잠시간이 평균 90분정도 짧아진다. 저녁에는 일찍 졸리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게 되며 밤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낮잠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필요한 잠시간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본사기자

## 유모아 《알을 품고 왔소이다》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알씩 가져오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을 듣지 못하여 다음날 아침에 미처 닭알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 관리는 자기 순서가 되자 갑자기 《꼬꼬대, 꼬꼬대》하고 닭알음소리를 내었다.

왕은 그를 내려다보며

《그대는 어이하여 닭알은 바치지 않고 닭알음소리만 내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관리 《소인이 존귀하신 삼감마마께 올릴 닭알을 하루도 가져올수가 없어서 알을 물안에 품고 왔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어서 그 알을 바쳐라!》

《소인의 배안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으니 레일아침에는 꼭 낳을것입니다.》

《?!...》

## 단편소설 6.15의 봄빛 (1)

1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야전차의 뒤좌석에 몸을 깊숙이 잠그시고 전선서부로 달려가게하시였다. 차창밖으로는 7월의 밝고 뜨거운 폭양아래 검푸른 독을 쓰며 아지치는 무연한 논밭이 달려왔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개고성 성벽처럼 치솟은 멸약산줄기의 련봉들이 서서히 선화하면서 골짜기와 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목장들과 농촌마을들이 겨름내기로 제 자랑하듯 선경을 펼쳐보이곤 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선지도 두 해째 되는 여름이었다. 왕성한 기운을 뿜으며 무성하는 이 여름처럼 이 땅의 모습도 나날이 변하며 일떠서고 기쁨이 철풍되기 시작한다.

얼마나 강건한 투쟁속에서 수호되고 창조되는 우리의 생활이 고변영인가. 어느 하루도 이 땅에는 전쟁의 구름이 떠돌지 않는 날이 없다. 며칠전에는 서해해상에서 무장충돌사건이 일어났다. 6.15의 열풍을 타고 밀려오르던 통일의 기운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총포

성의 서리를 들췄었다. 오죽하면 통일관계부문의 일군인 강국일의 표정과 목소리에서조차 당혹감과 주저감이 알려졌는가.

장군님께서는 차창밖의 풍경에서 시선을 떼고 지그시 눈을 감으시였다. 방금전 평양출발에 앞서 만나시고 함께 데리고 떠나신 강국일의 분개한 모습이 떠오르고 자신감이 덜 느껴지던 그의 목소리가 귀전에 다시 살아오르는것이였다.

《장군님,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일사천리로 내달던 통일의 앞길에 분렬주의자들이 차마 그런 무장도발의 차단벽을 치러라... 이 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6.15공동선언이야 우리만 아니라 남조선당국자신도 수표한 민족공동의 문건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부호전광들이 《주적》이니, 《핵개발》이니 대결을 고취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총포를 쏘아대다니, 정말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좀에서는 흥

분하지 않고 침착하고 용의주도한 태도로 매사를 다루는 강국일이 그답지 않게 격노하는 리면을 리해하시며 물으시였다.

《그래 동무들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장군님, 부서에서는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여 협의 회를 열고 토론중에 있습니다. 논의는 우리 선수단이 부산경기에 참가하느냐 마느냐 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참가해야 한다는 부류와 단호하게 참가하지 않는 원칙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부류로 나뉘어 각기 론거리를 내놓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신감이 덜 느껴지는 강국일의 동그런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시다가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그렇다?》

장군님께서는 묵묵히 생각에 잠기시였다.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강국일은 자신만한 한 배심을 가지고 국제경기가 비록 남쪽땅에서 진행되고 반통일세력들이 경기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리용할수도 있지만 우리 선수단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국제경기마저 민족대결장으로 만들려는 분렬주의자들의 비렬한 술책을 분쇄하고 북남화해와 단합의 대외장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완성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 조국통일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충직하고 로숙한 일군인 강국일을 크게 믿으시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남삼천리를 뒤흔드는 통일열풍-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이어 6.15공동선언발표 2돐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과 여러 갈래의 통일행사들 그리고 오는 8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민족통일대회... 분렬사상 전태이 고조되고 양양면 모든 통일운동에는 강국일의 뿔도 크게 들어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서해무장충돌사건이 터진것이였다. 꽃게잡이계절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수산물을 독점하기 위한 경제적목적의 추구가 아니였다. 분렬주의자들의 진의는 6.15이후 화산처럼 타오르는 통일기운을 꺾고 두 너학생들의 죽음을 계기로 반미투쟁에 밀려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이목



정 방 산 성 불 사 의 가 을

## 광개토왕릉비

비문들의 내면에는 줄줄이 새겨진 글자가 빼곡이 차 있다.

메 글자의 크기는 대체로 가로세로의 길이가 12cm이다. 비문에는 모두 44줄(1면에 11줄, 2면에 10줄, 3면에 14줄, 4면에 9줄)에 1775자의 글자가 내리새겨져있다.

릉비는 그 비문내용의 풍부성과 문장 및 서체의 우수성으로 하여 발견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국내외학자들의 깊은 주목을 끌고있다.

비문의 내용은 대체로 3개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 부분은 고구려의 건국경위와 시조왕 동명왕으로부터 련대 왕들의 계승관계, 광개토왕의 업적에 대한 총평과 통비건립의 목적 등이

새겨져있다.

둘째 부분에는 주로 광개토왕의 업적을 년대별, 사건별로 서술하였는데 고구려에 적대적인 나라들과 종족들을 징벌하여 침략위험을 가시고 영토를 크게 넓힌 사실, 백제, 신라를 비롯한 동족의 나라들을 막강한 영향력으로 통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셋째 부분에는 왕릉을 지키는 묘지기의 정원수, 그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새겨져있다.

이 비문에는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과 념원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비문내용은 내외의 력사 기록에는 전혀 없는 많은 사

실들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고구려의 력사는 물론 당시 동북아시아역사를 정확히 리해하고 체계화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근본자료로 된다.

광개토왕릉비는 문장이 명문이고 글씨가 뛰어나며 또 글자파기에 편할 정도로 자연바위를 대충 다듬어세운 웅장한 자태로 하여 고구려적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비문의 문장에 대하여 외국의 력사가들도 《비문이 간결하고 스통하여 최고급의 력사책의 필법과 같다.》고 하였으며 비문의 글씨에 대하여 여러 나라 글씨학자들과 서예가들은 《어느 글자나 다 방정엄격하고 질박수순하니 진실로

동방제일의 보배》, 《박력 있고 웅대하니 실로 로동제일의 고비》, 《웅건한 글씨는 황해도 내리누를듯이 장중하다.》라고 극구 칭찬하여마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고고학자들과 미술가들도 통비의 독특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하여 《고구려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고유한 풍격과 체취, 고구려의 강대한 위력함에 압도되었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광개토왕릉비는 우리 선조들이 직접 쓴 금석문유산중에서 가장 오랜것의 하나로서 비문에 담겨진 귀중한 력사자료로, 그 풍부한 서술내용, 위풍있는 모습과 호랑하고 활달한 문장과 글씨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여러 나라 인민들이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된다.

본사기자



평양민속공원의 일부

## 우리 민요의 상징 《아리랑》의 력사

우리 민요의 상징인 《아리랑》은 오늘 세계에 널리 알려진 명곡으로 되고있다.

《아리랑》의 발생과 어원에 대한 확실한 문헌적근거는 없으나 그와 관련한 전설은 많다.

《아리랑》이 처음으로 문헌에 기록된것은 리조후기 리소훈의 《만천유교》에 있는 《농부사》의 후렴부분인 《아로롱 아로롱 어회야》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리랑》이 대중적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시기는 1865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보수할 때부터라고 한다.

당시 경복궁보수를 위해 밤낮없이 백성들을 내몰고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부역에 끌어내는 대원군의 처사에 백성들속에서는 《차라리 귀가 먹

었으면 좋겠다.》는 탄식조의 《아리롱》이라는 노래가 전해졌는데 그것이 점차 전국적인 민요 《아리랑》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대중적인 민요로 된 《아리랑》은 19세기말에 이르러 궁궐안에서까지 불리워졌다고 한다.

리조시기 시인이며 학자인 황현이 1900년에 쓴 《매천야록》에는 고종이 밤만 되면 불을 켜놓고 《아리랑》을 들었다고 기록되어있으며 민비도 아약보다는 인간간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한 《아리랑》을 즐겨들었다고 한다.

일제강점시기 《아리랑》은 망국노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민족의 항거의 노래로 울려 퍼졌다.

1926년 라운규가 창작한

무성영화 《아리랑》을 계기로 《아리랑》은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자기의 생명력을 꽃피어 이어왔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아리랑》은 무려 5년동안 전국 곳곳에서 상영되었다.

그후 《아리랑》곡에 맞춘 《문자보급가》, 《종두선전가》가 나오고 《광복야곡》, 《아로롱 아로롱 어회야》 유명해지자 당황망조한 일제는 금지령을 내렸지만 풍자와 해학이 담긴 《아리랑》가사들이 계속 생겨났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30년대에는 일본음계를 리용한 《아리랑노래》, 《강남아리랑》 등도 나타났지만 전통민요 《아리랑》은 말살시킬수 없었다.

본사기자

## 야담 재산가르기

옛날에 한생을 다 산 늙은 부부가 땅너머로 리혼을 하게 되었다.

《자, 이제는 재산만 가르면 되겠습니까.》 재판을 말는 판리가 말하였다.

《령감이 먼저 재산 이름을 대시오. 그 다음 로친네가 대면 됩니다.》

령감이 무엇을 가질까 하고 궁리하다가 얼른 말하였다.

《농작은 내가 가지겠소.》

그러자 뒤따라 로친네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그속에 있는것은 내가 가지겠소.》

령감은 그만 아차 하였다.

그가짓 빈 농작은 해서 무엇하랴. 농속에 있는걸 가져야 할것이다.

《자, 이번에는 로친네가 먼저 대시오. 그 다음 령감 차례요.》

판리가 말하였다.

《오강!》

로친이 말하였다.

《단 그속에 있는것!》

령감은 얼른 말하고는 저우기 만족한듯 수업을 내리었다.